

2020607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장1-10

예수께서 모든 말씀은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 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먼저, 그는 타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영화 ‘쉰들러’를 아십니까?

줄거리는 나치의 점령과 함께 인근의 유대인들은 나치 게토가 설치된 크라쿠프로 강제 이주와 재산 전부 독일 측에 압류당한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부패하고 방탕한 민족독일인 사업가이자 나치당의 당원인 오스카 쉰들러(Oskar Schindler)[24]는 이를 한몫 단단히 챙길 기회라 생각해 크라쿠프로 이주하여 군대에 납품할 범랑 공장을 인수하고 싼값에 유대인 노동력으로 이윤을 챙기려 한다. 그때 유대인 포로인 슈테른은 쉰들러 회사의 직원으로 동포들을 돕다가 수용소로 끌려갈 뻔하다가 쉰들러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는다.

한편, 쉰들러와 친하게 지내던 크라쿠프 수용소의 소장 괴트는 반유대주의와 나치즘에 찌든 사이코패스 그 자체로 심심풀이로 발코니에서 사살하는 쾌락질과 나치가 크라쿠프 게토를 청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쉰들러는 충격을 받고 쉰들러는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 쉰들러의 공장에서는 그래도 인간 대접은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다.

쉰들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자금력이 닿는

한 가능한 모든 수용자들을 공장 노동자라는 명목 아래 빼돌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구출할 수용자들의 "쉴러의 명단"(Schindler's list)이 작성된다.

하지만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하며 유대인들은 마침내 해방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당원이었던 쉴러가 연합군에 의해 전쟁 범죄자로 쫓기게 된다.

쉴러는 자신이 구출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하고 쉴러와 아내가 야반 도주를 하던 밤, 모든 노동자들과 슈테른이 그를 배웅한다. 슈테른은 쉴러가 흑시나 붙잡혔을 때를 대비해 노동자들과 함께 쓴 탄원서를 건네주고, 금니를 녹여 만든 반지에다 탈무드의 격언인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를 새겨 선물한다.

유대인들은 쉴러 덕분에 1,100명의 유대인과 그들에게서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목숨을 구원받았으며 감사를 표하지만, 쉴러는 **자신이 조금만 더 돈을 벌었다면, 가진 걸 조금만 더 털었다더라면**, 진작에 돈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넋이 나간 채로 오열한다.

쉴러에 의해 살아난 "쉴러의 유대인들"

의 현재 모습(1993년 당시)을 보여준다. 쥘 들러는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묘호 하에 나치 당원로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안장된다. 그가 구해준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 수 천명이 찾아와 쥘 들러의 묘비에 돌을 올리며 그를 추모한다. 그리고 오스카 쥘 들러를 연기한 배우 리암 니슨이 장미 2송이를 묘비에 올리고 쥘 들러 묘지 앞에서 있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난다.

본문의 백부장이 반드시 쥘 들러 같다고 하지 못하겠으나, 하여간 타인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진정,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다음,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회나 조직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치병이 아닌 종, 또는 가족, 일꾼들 중의 아이가 아프자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자비의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병을 치유하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

음을 움직였습니다. 타인의 신분이나, 인격
기타 모든 분야를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라는
권위 인정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그러나 백부장(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 장교)
은 자신이 지휘관으로 명령하면 그에 복창하고
순종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에게 같은 방식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현실을 타개합니다.

그리고 텔레파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권위인 말씀이 선포되자 거리에 무관하게
집에 있는 환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루지는 거룩한 비밀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시공을 넘으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시간이란 장벽이 없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이란 것도 그렇지요, 언제부터 아픈지 어디서부터
아픈지 그 존재도 시공을 넘어 괴롭혀 오는 세균이며,
무형의 존재(?)입니다. 이를 타개하실 분은 그
물질의 원인을 아시는 그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의 영적 텔

레파시가 환우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 사건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찬양이 그런 거룩한 텔레파시를 파동케 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를 거룩한 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간절한 텔레파시는 거룩한 영의 역사로 영적 파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시공간을 넘어서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텔레파시, 거룩한 파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찬양, 진실한 신앙의 교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영의 충만한 울림과 넘침이 이 모임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거룩한 영적 파동으로 중보의 기도하던 내 이웃,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그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우리는 신앙의 자분을 통해 이웃들에게 진솔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타인은 먼저 존중하고 그의 이견, 또는 의견, 형편에 대해 잘 살펴야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넘어 그에게 거룩한 영적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